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. 22.(목) 12:00
(지 면) 2026. 1. 23.(금) 조간

어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본격 착수

- 인공지능 및 카메라 정보 기반의 소형 어선 맞춤형 충돌 방지 장치 개발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어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, 어선 충돌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리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선 충돌로 인한 사망·실종자 수*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. 특히, 소형 어선의 경우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,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.
* ('22) 6명 → ('23) 10명 → ('24) 15명 (출처: 중앙해양안전심판원)
- 이에, 행정안전부는 2027년 말까지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‘소형 어선 맞춤형 충돌 방지 장치’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.
- 해당 장치는 인공지능(AI) 기술과 카메라 정보를 활용해 해상에서 위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, 어선 간 거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어선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.
-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해상에서 반복 실증을 거쳐 경보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며,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,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 등을 공동으로 논의한다.
-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“대부분의 어선 충돌사고가 운항 과실에서 비롯되는 만큼,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”라며,
○ “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개발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이선무 (044-205-6190)
		담당자	사무관	오준현 (044-205-6197)

